

25 어떻게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 마르크스는 그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귀결로 네 가지의 소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자본가의 것이며 상품이 세상에 나오므로써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애덤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한 결과, 노동은 인간에게 '지루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마르크스는 이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본래 노동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금 노동제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인간은 노동을 하는 동안 자기를 느끼지 못하며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독립된 자신으로 설 수 있다.

셋째는 유적(類的 Species)소외다. 분업이나 임금 노동에 의해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한 회사나 사회의 기계적인 부품, 즉 기어(톱니바퀴)가 된다. 이것이 유적 소외다.

넷째는 인간, 즉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인 인간의 가치는 사회나 회사의 톱니바퀴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하는가 하는 생산성만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짧은 노동으로 재빨리 돈을 벌까에 집중되어 인간다운 노동이나 중여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에게서 얼마나 빼앗을까, 타인을 어떻게 앞지를까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다.

• 마르크스는 소외를 원래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전개되는 노동과 자본의 분리, 혹은 분업에 의한 노동의 시스템화가 초래하는 폐해로 규정했다. 소외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대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시스템에 의해 자신들이 휘둘러 훼손당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소외가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자연히 소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발적인 이념과 가치관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